

# 21인 미만 보육시설에 대한 자체평가와 전문가평가의 차이 분석

Difference Between Self-Evaluation and Professional Evaluation  
in Child Care Centers with Less than 21 Children

서혜전(Hye Jeon Suh)<sup>1)</sup>

오현주(HyunJoo Oh)<sup>2)</sup>

안소영(SoYoung Ahn)<sup>3)</sup>

##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establishing a diversity of plans for assisting childcare centers, by examining differences between self-evaluation and professional evaluation in childcare centers with less than 21 children. Data were collected from 7 childcare centers to measure evaluation in five categories of accreditati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self-evaluation and professional evaluation in “child care curriculum” and in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and children.” These results point up the handicap of heavy dependence on self-evaluation as it leads to self-assistance, with limited access to new ideas. On the other hand, “circuit assistance” where a consortium of 2~3 different childcare centers advise and assist each other could effectively stimulate a more professional outlook.

**Key Words** : 평가인증(accreditation), 조력(assistance), 자체평가(self-evaluation) 보육시설(childcare).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급증하게

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확충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보육시설 양적확충과 더불어 제기된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

<sup>1)</sup> 부산디지털대학교 아동보육학과 조교수

<sup>2)</sup>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sup>3)</sup>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Hye Jeon Suh, Dept. Child care & Education, Busan Digital Univ. JooRye 2 Dong, Sasang Gu, Busan  
E-mail : childcare@bdu.ac.kr

보육시설들이 영유아에게 바람직하고 적합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질적으로 우수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우려에 관한 것이었다. 2004년 12월 여성부의 보육 통계에 따르면, 보육 시설의 평균 이용률이 85%로서 보육 시설 공급이 더 많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들은 믿고 맡길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점이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보육 발전 방향을 모색해왔으며, 그 결과는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으로 나타났다. 법에 제시된 보육시설 인가제, 보육교사 자격증제, 평가인증제를 통한 평가와 관리 등은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본질적 목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평가인증제를 통한 보육 시설 평가와 관리의 한국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본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보육을 주로 민간 부문에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평가인증제는 보육시설을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의 권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 지원이 개별시설 보육비의 절대적 부분을 차지하는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반면, 미국과 호주처럼 민간부문의 보육시설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민간부문 보육시설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인증제를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이옥, 2002). 이러한 국가에서 발표된 평가인증 관련 선행연구(Cheryl, 2005)에서는 평가인증제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미 많은 학자들(Besky, 2001; Peisner-Feinberg et al., 2000; Sylva et al., 2006; Vandell & Wolfe, 2000)이 보육의 높은 질은 아동의 더 나은 발달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향상된 보육의 질은 아동의 긍정적 발달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평가인증제를 통해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아동의 더 나은 발달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도달은 지속적인 지원과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해질 수 있다.

2005년 평가인증 시범실시에 참여한 보육시설들은 공식적인 조력기구인 보육정보센터의 강의 및 세미나와 보육시설연합회 및 여러 단체 주관의 특강이나 워크샵에 참석했으며, 교사와 원장들 간의 논의 및 토론, 보육시설간의 정보 교환, 전문가 조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했다. 이런 다양한 조력은 보육환경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혜전(2006)은 조력 이후 보육시설 만족도 조사 결과와 평가인증 통과 결과를 볼 때 전문가의 조력이 효과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개별 보육시설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보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업무 부담과 함께 정서적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2005년 평가인증 시범실시 때 이뤄졌던 조력 중 대부분은 특강, 세미나, 워크샵, 자료 및 비디오 배포와 같은 대집단 조력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서혜전, 2006). 이는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과정적 요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상호작용은 상황적 맥락에 따라 아주 달리 표출되기 때문인 것은 물론 교사의 역량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므로 보육 현장에서의 상호작용 관찰을 통한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보육활동을 계획·구성하여 활동을 전개해나가는 과정도 관찰을 통한 개별

조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처럼 보육시설 평가 인증 지표의 7개 영역에 대해서 일괄적인 조력의 형태보다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조력 방향들이 수립되어질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조력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보육 환경에 대해 보육시설 종사자와 전문가간의 시각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학급구조나 프로그램 구성의 범주보다는 교사 자신의 자질, 교사의 교육적 행동 범주에서 더 높은 질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Chia-Shen, 2005), 이것은 전문가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Tracy Lyn, 2005).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스스로 생각해볼 때 나름대로 보육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동을 위해 최상의 것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전문적 시각에서 그 교육적 행위를 평가해 볼 때는 결과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어느 시점에 가면 자신들이 제공하고 있는 보육의 질이 어떠한 수준이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프로그램과 기관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느낄 때가 있어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자문을 얻기 원한다(김선구, 2005). 이것은 교사들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로서 이 역시 자신의 시각과 전문가의 시각 차이를 이해하고 어느 측면에서 시각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 노력을 통해 보육의 질이 한차례 향상되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보육의 질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와 전문가의 인식간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영양·안

전 영역과 보육의 질과의 관련성을 논의한 연구(손인숙 외, 2004; 이완정, 1999; 이윤경 외, 2004; 태진, 1998)들은 있으나 보육환경 및 교사의 자질이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육환경 및 교사의 자질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시설장이나 교사들이 자신의 보육시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인식과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조력의 방향과 초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1인 미만의 보육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선행연구(박지영, 2005; 한갑순, 2005)에서 소규모의 가정보육시설의 현황은 일반적으로 열악하며,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이 가정보육시설 운영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힌 것에 기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1인 미만 보육시설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조력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21인 미만 보육시설에 대한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1) '보육환경과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평가 차이는 어떠한가?
- 2) '보육과정' 측면에서의 평가 차이는 어떠한가?
- 3) '상호작용' 측면에서의 평가 차이는 어떠한가?
- 4) '건강과 영양' 측면에서의 평가 차이는 어떠한가?
- 5) '안전' 측면에서의 평가 차이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S시에 소재한 7곳의 21인 미만 보육시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보육시설은 3개월 이내에 평가인증을 받기로 예정된 곳으로써 모두 아파트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3개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교사 경력은 평균 2년이고, 6개월에서부터 69개월까지의 원아들이 재원하고 있는 곳이었다.

### 2. 연구도구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위한 도구는 2003년 보건복지부 용역 '보육시설 인증제도 실시모형개발' 연구과제에서 개발되고 2004년까지 수정·보완한 <21인 미만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를 사용하였다. 5개영역 6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의 평가기준은 1점은 부적절한 수

<표 1> 21인 미만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영역	하위 영역	항목 수
1.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보육시설 환경	3
	시설운영 및 가족과의 협력	6
	보육인력	3
2. 보육과정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4
	보육활동과 자료	9
3. 상호작용	일상적 양육	4
	교사의 상호작용	7
4. 건강과 영양	청결과 위생	8
	질병관리	3
	급식과 간식	3
5. 안전	실내 시설의 안전	4
	영유아의 안전보호	6
계		60

준, 2점은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3점은 우수한 수준의 '3단계 기술평정척도'로 이루어져 있다(여성가족부, 2005).

### 3. 연구절차

#### 1) 전문가(관찰자) 배경

본 연구에서는 <21인 미만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에 따라 보육시설을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해 연구자를 포함하여 6명이 관찰자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전문가 평가를 위해 선정된 전문가들의 기준은 평가인증제의 '현장관찰자'의 자격에 부합되는 조건을 토대로 정하였다.

<표 2> 관찰자의 배경

관찰자	학력	진공	보육교사 경력
관찰자 1	박사	유아교육	3년
관찰자 2	박사 수료	유아교육	5년
관찰자 3	박사 수료	아동복지	5년
관찰자 4	박사 수료	아동복지	6년
관찰자 5	박사 수료	아동복지	7년
관찰자 6	박사 과정	아동복지	15년

#### 2) 전문가(관찰자) 훈련

객관적이고 일관성있는 관찰 및 평가를 위해 전문가 대상의 훈련이 이뤄졌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2005년 7월 6일부터 9월 1일 까지 2개월 동안 매주 4시간씩 총 8회로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및 관찰 영역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나서 6명의 관찰자가 각 영역을 맡아 영역별로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이 무엇이고, 각 항목에서 우수한 실체가 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6인의 관찰자가 함께 모여 토론을 진행하면서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공통된 의견들을 수렴해

〈표 3〉 관찰자 교육의 기간과 내용

일 시	주 제	내 용	자 료
7월 6일	연구의 목적 및 관찰 영역	연구 목적 설명 및 평가인증지표 살펴보기	21인 미만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
7월 13일	영역 1.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항목별 우수한 실재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고, 보육시설 환경 사진을 보면서 의견 수렴하기	보육 시설 환경 사진 및 관련 서류
7월 20일	영역 2. 보육과정	항목별 우수한 실재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고, 의견 수렴하기	보육시설의 계획안
7월 27일	영역 3. 상호작용	하루일과중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장면을 비디오로 보면서 항목에 대한 의견 수렴하기	상호작용 모습을 녹화한 비디오 자료
8월 3일	영역 4. 건강과 영양	항목별 우수한 실재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고, 의견 수렴하기	보육시설 환경 사진 및 관련 서류
8월 10일	영역 5. 안전	항목별 우수한 실재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고, 의견 수렴하기	보육시설 환경 사진 및 관련 서류
8월 24일	관찰자 면담	영역별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 응답하기	
9월 1일	시설장 면담	평가인증 준비 과정에 대한 사례를 듣고 질의 응답하기	

나갔다. 또한 기존에 보육시설 관찰자로서 참여 하였던 관찰자 면담과 보육시설 평가를 받았던 보육시설의 시설장 면담을 통해, 현장의 사례를 접하고 토론 중에 드러났던 의문점들을 해결하는 시간도 가졌다.

## 2) 보육시설 자체평가

7곳의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을 대비하여 보육 정보센터에서 실시한 관련 세미나에 참여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2005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조력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보육시설 간에 수시로 모임을 가져 각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를 공유하고, 관련 자료들을 함께 구입하며, 서로 타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관찰한 자료들을 토대로 의견을 나누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평가인증에 대

한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 시점에서 각 보육시설은 평가인증 지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7곳의 자체평가는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 동안 이루어졌고, 자체평가 결과는 우편으로 수거되었다.

## 3) 전문가 평가

본 연구의 전문가 평가는 9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3주간 이루어졌으며, 각 보육시설에 3명의 전문가가 동시에 들어가 관찰을 하였다. 관찰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중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보육시설의 환경과 교사-유아의 활동장면을 주로 관찰하고 2시부터 6시까지는 시설장·교사와의 인터뷰 및 관련 문서들을 중심으로 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우선 보육시설 환경과 교사-유아 활동장면에 대한 관찰은 3인의 전문가가 1시간 간격으로 돌

아가면서 관찰하고, 관찰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평가지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관련 문서 평가는 3인이 함께 모여 문서들을 검토하면서 각 항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며 역시 하나의 평가지에 기록을 하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되었다. 보육시설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평정점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평가인증지표에 대한 보육시설 자체평가 점수와 전문가 평가 점수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낮은 점수(비교점수)/높은 점수(기준 점수)×100'의 공식을 사용하였다(최연철·강병재, 2005). 분석은 선행문헌을 토대로 하여 일치도가 90점 이상~100점이면 아주 높은 일치도, 80점 이상~90점 미만이면 높은 일치도, 75점 이상~80점 미만은 비교적 높은 일치도, 70점 이상~75점 미

만은 비교적 낮은 일치도, 60점 이상~70점 미만은 낮은 일치도, 60점 미만은 아주 낮은 일치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평가인증지표에 대한 항목별 일치도는 각 개별 평정점수의 일치도를 합산하여 보육시설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위의 일치도에서 보여지는 차이가 유의한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점수 간 t-test를 실시하였다.

### Ⅲ. 결과 분석

보육시설에 대한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점수간의 일치도,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보육환경과 운영관리'에 대한 인식 차이

'보육환경과 운영관리' 관련 평가항목은 3개 범주의 총 12항목이었으며, 3개 범주 모두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

〈표 4〉 '보육환경과 운영관리(1영역)'에 대한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 평정점수의 일치도

		A	B	C	D	E	F	G	전체일치 정도	전체 일치도
보육시설환경	1-1	100.0	100.0	100.0	66.7	100.0	100.0	66.7	90.5	85.7
	1-2	66.7	100.0	66.7	100.0	33.3	66.7	66.7	71.4	
	1-3	100.0	100.0	100.0	66.7	100.0	100.0	100.0	95.2	
시설운영 및 가족과의 협력	1-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1.7
	1-5	100.0	66.7	100.0	100.0	100.0	50.0	66.7	83.3	
	1-6	66.7	100.0	100.0	66.7	100.0	66.7	50.0	78.6	
	1-7	100.0	66.7	66.7	100.0	66.7	66.7	66.7	76.2	
	1-8	66.7	66.7	66.7	66.7	100.0	33.3	66.7	66.7	
	1-9	66.7	66.7	100.0	100.0	100.0	100.0	66.7	85.7	
보육인력	1-10	66.7	66.7	100.0	100.0	66.7	66.7	100.0	81.0	80.2
	1-11	50.0	100.0	100.0	100.0	100.0	33.3	100.0	83.3	
	1-12	66.7	66.7	66.7	100.0	100.0	33.3	100.0	76.2	

타났다. 특히 ‘보육시설환경’ 범주에서는 일치도 85.7로 나머지 2개 범주보다는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으며 이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환경 평가에 있어서 시설 자체 견해와 전문가의 견해가 비슷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보육시설환경’ 범주는 ‘건강과 영양(4영역)’의 ‘급식과 간식’ 범주와 함께 전체 60항목의 12개 범주 중에서 두 번째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또한 3개 범주 중에서는 ‘보육인력’ 범주의 일치도(80.2)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보육시설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1-8)’ 항목은 일치도 66.7로 낮은 일치도를 보였으며, ‘보육실 내 영유아의 휴식공간(1-2)’ 항목은 비교적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반면 ‘시설의 영유아 수와 담당교수(1-4)’ 항목은 완전한 일치(일치도 100)를 보였으며, ‘영유아의 개인 소지품 보관장소(1-3)’ 항목과 ‘영유아용 가구와 설비(1-1)’ 항목도 일치도 각각 95.2, 90.5로써 아주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표 5〉 ‘보육환경과 운영관리(1영역)’에 대한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항목당 차이

항 목	보육시설 자체평가 M(SD)	관찰자 평가 M(SD)	t	
보육시설 환경	1-1	3.00(.00)	2.71(.49)	1.55
	1-2	3.00(.00)	2.14(.69)	3.29*
	1-3	2.86(.38)	3.00(.00)	-1.00
시설운영 및 가족과의 협력	1-4	3.00(.00)	3.00(.00)	
	1-5	2.43(.53)	2.00(.58)	1.44
	1-6	2.57(.53)	2.29(.76)	0.82
	1-7	2.86(.38)	2.14(.38)	3.54**
	1-8	3.00(.00)	2.00(.58)	4.58**
	1-9	2.57(.53)	3.00(.00)	-2.12
보육인력	1-10	2.71(.49)	2.14(.38)	2.45*
	1-11	2.29(.49)	1.86(.69)	1.34
	1-12	3.00(.00)	2.29(.76)	2.50*

\* $p < .05$  \*\* $p < .01$

위의 일치도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점수 간에 t-test를 실시했다.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영역에서는 ‘보육실 내 영유아의 휴식공간(1-2)’, ‘원아에 대한 문서관리(1-7)’, ‘보육시설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1-8)’, ‘보육시설 종사자의 재교육(1-10)’,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급규정(1-1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이런 유의미한 차이는 각 항목당 평균을 통해 분석해 볼 때 보육시설 자체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전문가 평가 점수는 그에 비해 낮았다는 점에서 이런 차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항목별 평균으로 비교해 볼 때 ‘보육시설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1-8)’ 항목에서 평균점수간에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시설장이 가정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들은 주로 게시판,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정과 의사소통하며 일일보고서 및 알림장이나 전화는 간혹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한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보육실내 영유아의 휴식공간(1-2)’, ‘원아에 대한 문서관리(1-7)’,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급규정(1-12)’의 순으로 자체평가와 전문가평가 점수의 평균 차이 폭이 넓게 나타났다.

## 2. ‘보육과정’에 대한 인식 차이

‘보육과정’ 관련 평가항목은 2개 범주의 총 13 항목이었으며, 2개 범주 모두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일치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개 범주를 비교해보면 ‘보육활동계획과 운영(70.8)’분야가 ‘보육활동과 자료(74.3)’분야보다 일치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보육활동계획과 운영’ 분야에서 시설에 대한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 간에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났음을 시

〈표 6〉 '보육과정(2영역)'에 대한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 평정점수의 일치도

		A	B	C	D	E	F	G	전체일치 정도	전체 일치도
보육활동 계획과 운영	2-1	66.7	33.3	50.0	50.0	33.3	33.3	33.3	42.9	70.8
	2-2	50.0	100.0	100.0	100.0	66.7	33.3	100.0	78.6	
	2-3	100.0	100.0	100.0	100.0	100.0	66.7	100.0	95.2	
	2-4	50.0	100.0	100.0	100.0	33.3	33.3	50.0	66.7	
보육활동과 자료	2-5	100.0	100.0	66.7	100.0	66.7	66.7	50.0	78.6	74.3
	2-6	100.0	100.0	100.0	100.0	66.7	66.7	100.0	90.5	
	2-7	66.7	66.7	50.0	100.0	66.7	66.7	66.7	69.0	
	2-8	50.0	50.0	66.7	66.7	66.7	66.7	50.0	59.5	
	2-9	66.7	66.7	66.7	66.7	66.7	66.7	66.7	66.7	
	2-10	66.7	100.0	100.0	100.0	100.0	33.3	66.7	81.0	
	2-11	100.0	100.0	66.7	66.7	66.7	33.3	100.0	76.2	
	2-12	100.0	100.0	66.7	50.0	66.7	66.7	50.0	71.4	
	2-13	66.7	66.7	100.0	100.0	66.7	66.7	66.7	76.2	

사한다. 특히 '보육계획안의 수립(2-1)' 항목은 전체 60항목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언어활동과 자료(2-8)'의 일치도가 59.5로 나타나 아주 낮은 일치도를 보였으며, '연령별 대안활동(2-4)' 항목, '친사회적 행동(2-9)' 항목, '대소근육 활동과 자료(2-7)' 항목들도 낮은 일치도를 보임으로써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 간에 차이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 '실외활동 및 일상생활 관련 활동(2-3)' 항목은 두 평가 간에 아주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일치도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t-test 결과를 보면, '보육과정' 영역에서는 13개 항목 중 10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계획안의 수립(2-1항목)'은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간에 높은 차이가 있음으로 나타났고( $t=6.74, p<.001$ ), 평균으로 비교해볼 때 시설 자체적으로는 '보육계획안을 구체적이고 연계성있게 수립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 $M=2.71$ ) 반면 전문가들은 '보육계획안이 문서로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연계성도 없다'고 보

〈표 7〉 '보육과정(2영역)'에 대한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항목당 차이

항 목	보육시설 자체평가 M(SD)	관찰자 평가 M(SD)	t	
보육활동 계획과 운영	2-1	2.71(.49)	1.14(.38)	6.74**
	2-2	2.29(.49)	1.71(.49)	2.20*
	2-3	2.43(.53)	2.29(.49)	0.52
	2-4	2.29(.49)	1.43(.53)	3.13*
보육활동과 자료	2-5	2.43(.53)	1.86(.38)	2.31*
	2-6	2.29(.49)	2.00(.00)	1.55
	2-7	2.71(.49)	1.86(.38)	3.67*
	2-8	2.57(.53)	1.57(.53)	3.50*
	2-9	2.86(.38)	2.14(.38)	3.54*
	2-10	3.00(.00)	2.43(.79)	1.92
	2-11	2.57(.53)	1.86(.38)	2.89*
	2-12	2.43(.53)	1.71(.49)	2.61*
	2-13	2.86(.38)	2.14(.38)	3.54*

\* $p<.05$  \*\* $p<.001$

는 경향이 있음( $M=1.14$ )을 알 수 있다.

특히 보육과정 영역은 '상호작용 영역'과 함께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이 많은 영역으로서, 이는 시설 평가에 있



〈표 8〉 '상호작용(3영역)'에 대한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 평정점수의 일치도

		A	B	C	D	E	F	G	전체일치 정도	전체 일치도
일상적 양육	3-1	66.7	33.3	66.7	100.0	66.7	33.3	66.7	61.9	68.3
	3-2	100.0	66.7	66.7	100.0	100.0	66.7	100.0	85.7	
	3-3	66.7	33.3	66.7	66.7	33.3	66.7	66.7	57.1	
교사의 상호작용	3-4	66.7	66.7	66.7	66.7	66.7	66.7	100.0	71.4	67.9
	3-5	66.7	33.3	100.0	100.0	100.0	100.0	66.7	81.0	
	3-6	66.7	66.7	33.3	66.7	33.3	66.7	66.7	57.1	
	3-7	66.7	33.3	66.7	100.0	33.3	66.7	100.0	66.7	
	3-8	100.0	50.0	100.0	66.7	33.3	66.7	100.0	73.8	
	3-9	66.7	33.3	66.7	66.7	33.3	66.7	33.3	52.4	
	3-10	66.7	33.3	50.0	66.7	50.0	100.0	33.3	57.1	
	3-11	100.0	100.0	66.7	66.7	100.0	100.0	50.0	83.3	

어 시설장들이 전문가들보다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반면 '실외활동 및 일상생활 관련 활동(2-3항목)', '감각 및 조작 활동과 놀이감(2-6항목)', '기본 생활습관 활동(2-10항목)'은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차이

'상호작용' 관련 평가항목은 2개 범주의 총 11항목이었으며, 2개 범주 모두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개 범주를 비교해보면 '일상적 양육(68.3)'분야가 '교사의 상호작용(67.9)'분야보다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2개 범주 모두 전체 60항목의 12개 범주 중에서 가장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이것을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시설의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 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항목별로 보면 '교사가 또래 간 협동, 나누기, 긍정적 정서표현 등의 상호작용을 자주 격려하는 것(3-9)'항목은 가장 낮은 일치도(52.4)를 보

〈표 9〉 '상호작용(3영역)'에 대한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항목당 차이

항 목	보육시설 자체평가 M(SD)	관찰자 평가 M(SD)	t	
일상적 양육	3-1	3.00(.00)	1.86(.69)	4.38*
	3-2	3.00(.00)	2.57(.53)	2.12
	3-3	3.00(.00)	1.71(.49)	6.97**
교사의 상호작용	3-4	3.00(.00)	2.14(.38)	6.00*
	3-5	2.86(.38)	2.00(.58)	3.29*
	3-6	3.00(.00)	1.71(.49)	6.97**
	3-7	3.00(.00)	1.71(.49)	6.97**
	3-8	2.43(.53)	1.86(.69)	1.73
	3-9	3.00(.00)	1.57(.53)	7.07**
	3-10	2.71(.49)	1.43(.53)	4.70*
	3-11	2.29(.49)	1.86(.38)	1.84

\* $p < .05$  \*\* $p < .001$

임으로써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간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3-6)'항목,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 상대로 참여하여 놀이를 활성화시키는 것(3-10)'항목, '영유아의 기저귀 갈기 및 화장실 사용에서 개별적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경험을 갖게 하는 것(3-3)'항

목들의 일치도는 57.1로써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일치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교사의 평등대우(3-7)’항목에서도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반면 ‘영유아의 낮잠시간(3-2)’ 항목에서는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상호작용’ 영역에서는 11개 항목 중 8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3-9항목)’은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 간에 높은 차이가 있음으로 나타났고( $t=7.07, p<.001$ ), 평균으로 비교해볼 때 시설 자체적으로는 ‘교사가 또래 간 협동, 나누기, 긍정적 정서표현 등의 상호작용을 자주 격려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 $M=3.00$ ) 반면 전문가들은 ‘교사가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가끔 격려하거나 거의 격려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음( $M=1.57$ )을 알 수 있다.

특히 상호작용 영역은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이 많은 영역으로서, 이는 시설 평가에 있어 ‘상호작용’에 있어

시설장들이 전문가들보다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반면 ‘영유아의 낮잠시간(3-2항목)’,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지도(3-8항목)’, ‘영유아간의 다툼이나 문제상황 개입(3-11항목)’은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건강과 영양’에 대한 인식 차이

‘건강과 영양’ 관련 평가항목은 3개 범주의 총 14항목이었으며, 3개 범주 모두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범주를 비교해보면 ‘질병관리(87.3)’, ‘급식과 간식(85.7)’, ‘청결과 위생(83.3)’ 순으로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질병관리’ 범주는 전체 60항목의 12개 범주 중에서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였으며, ‘급식과 간식’ 범주는 ‘보육시설 환경’ 범주와 함께 두 번째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이는 질병관리 분야와 급식, 간식 관리 분야에 대한 평가 있어서는 시설의 인식과 전문가

〈표 10〉 ‘건강과 영양(4영역)’에 대한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 평점점수의 일치도

	A	B	C	D	E	F	G	전체일치 정도	전체 일치도
청결과 위생	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6.7	95.2
	4-2	100.0	100.0	100.0	66.7	100.0	100.0	66.7	90.5
	4-3	100.0	66.7	100.0	100.0	100.0	100.0	100.0	95.2
	4-4	66.7	66.7	66.7	33.3	66.7	66.7	66.7	61.9
	4-5	66.7	100.0	66.7	100.0	100.0	66.7	100.0	85.7
	4-6	100.0	66.7	66.7	100.0	100.0	66.7	66.7	81.0
	4-7	100.0	100.0	100.0	66.7	100.0	100.0	100.0	95.2
	4-8	66.7	66.7	66.7	66.7	66.7	66.7	33.3	61.9
질병관리	4-9	100.0	66.7	100.0	100.0	66.7	66.7	66.7	81.0
	4-10	100.0	66.7	100.0	66.7	100.0	66.7	100.0	85.7
	4-11	100.0	100.0	100.0	100.0	100.0	66.7	100.0	95.2
급식과 간식	4-1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13	100.0	66.7	66.7	100.0	66.7	66.7	100.0	81.0
	4-14	66.7	66.7	66.7	100.0	66.7	66.7	100.0	76.2

〈표 11〉 ‘건강과 영양(4영역)’에 대한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항목당 차이

항 목	보육시설 자체평가 M(SD)	관찰자 평가 M(SD)	t	
청결과 위생	4-1	3.00(.00)	2.86(.38)	1.00
	4-2	3.00(.00)	2.71(.49)	1.55
	4-3	3.00(.00)	2.86(.38)	1.00
	4-4	3.00(.00)	1.86(.38)	8.00**
	4-5	3.00(.00)	2.57(.53)	2.12
	4-6	3.00(.00)	2.43(.53)	2.83*
	4-7	3.00(.00)	2.86(.38)	1.00
	4-8	3.00(.00)	1.86(.38)	8.00**
질병관리	4-9	3.00(.00)	2.43(.53)	2.83*
	4-10	3.00(.00)	2.57(.53)	2.12
	4-11	3.00(.00)	2.86(.38)	1.00
급식과 간식	4-12	3.00(.00)	3.00(.00)	
	4-13	2.86(.38)	2.57(.53)	1.16
	4-14	3.00(.00)	2.29(.49)	3.87*

\* $p<.05$  \*\* $p<.001$ 

인식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을 시사한다.

항목별로 보면, ‘조리공간, 음식, 마실 물의 위생적 관리(4-4)’와 ‘놀이감의 청결(4-8)’ 항목에서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간에 낮은 일치도를 보여 인식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급식 계획과 시행(4-12)’ 항목은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간에 완전한 일치도(100.0)를 보였으며, ‘실내시설의 청결유지(4-1)’,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유지(4-3)’,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4-7)’, ‘영유아와 종사자의 정기 건강검진(4-11)’ 항목들에서도 상당히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위의 일치도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t-test 결과를 보면, ‘건강과 영양’ 영역에서는 14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조리공간, 음식, 마실 물의 위생적 관리(4-4항목)’과 ‘놀이감의 청결(4-8항목)’은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간에 높은 차이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t=8.00, p<.001$ ), ‘영유아를 위한 간식(4-14항목)’,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손 씻기(4-6항목)’,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4-9항목)’ 들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을 보면 건강과 영양 영역에서는 하나의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시설장들은 자체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3점)로 평가했으나 유의한 차이가 난 5개 항목 평가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은 의견을 달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안전’에 대한 인식 차이

‘안전’ 관련 평가항목은 2개 범주의 총 10항목이었으며, 2개 범주 가운데 ‘실내시설의 안전(83.3)’은 높은 일치도를 보인 반면 ‘영유아의 안전보호(70.2)’는 비교적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특히 ‘영유아의 안전보호’ 범주는 전체 60항목의 12개 범주 중에서 세 번째로 낮은 일치도를 보임으로써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간에 차이가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항목별로 볼 때, ‘교사는 영유아들이 어디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보육실 전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가(5-5)’ 항목에서는 일치도 61.9로써 낮은 일치도를 보였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보육시설의 책임 한계(5-8)’와 관련된 항목에서도 일치도 69.0으로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영유아의 인계과정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5-6)’항목, ‘등원 및 귀가용 차량 운행시 안전도구를 갖추고 보육교사가 동승하여 운행(5-7)’항목,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5-10)’항목들도 비교적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하지만 ‘실내시설의 안전관리(5-1)’항목에서는 아주 높은 일치도를 보임으로써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

〈표 12〉 '안전(5영역)'에 대한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 평정점수의 일치도

		A	B	C	D	E	F	G	전체일치 정도	전체 일치도
실내시설의 안전	5-1	100.0	100.0	100.0	100.0	100.0	66.7	100.0	95.2	83.3
	5-2	66.7	100.0	66.7	100.0	66.7	66.7	66.7	76.2	
	5-3	66.7	66.7	66.7	100.0	100.0	66.7	100.0	81.0	
	5-4	66.7	66.7	66.7	100.0	100.0	66.7	100.0	81.0	
영유아의 안전보호	5-5	66.7	33.3	66.7	100.0	33.3	66.7	66.7	61.9	70.2
	5-6	66.7	50.0	100.0	50.0	33.3	100.0	100.0	71.4	
	5-7	66.7	66.7	66.7	66.7	66.7	66.7	100.0	71.4	
	5-8	100.0	66.7	100.0	50.0	66.7	66.7	33.3	69.0	
	5-9	66.7	100.0	66.7	100.0	66.7	66.7	66.7	76.2	
	5-10	66.7	66.7	100.0	100.0	66.7	33.3	66.7	71.4	

〈표 13〉 '안전(5영역)'에 대한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항목당 차이

항 목	보육시설 자체평가 M(SD)	관찰자 평가 M(SD)	t	
실내시설의 안전	5-1	2.57(.53)	2.43(.53)	0.50
	5-2	2.43(.53)	2.29(.49)	0.52
	5-3	3.00(.00)	2.43(.53)	2.83*
	5-4	2.43(.53)	2.43(.53)	
영유아의 안전보호	5-5	3.00(.00)	1.86(.69)	4.38*
	5-6	2.43(.53)	2.00(1.00)	1.00
	5-7	2.57(.53)	2.29(.49)	1.04
	5-8	2.71(.76)	2.14(.69)	1.48
	5-9	2.86(.38)	2.14(.38)	3.54*
	5-10	2.71(.49)	1.86(.38)	3.67*

\* $p < .05$  \*\* $p < .001$

가간에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안전' 영역에서는 10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5-5항목)', '위험한 물건의 보관(5-3항목)',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설비와 대처방안(5-9항목)',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5-10항목)'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교적 낮은

일치도를 보였던 5-6항목, 5-7항목, 5-8항목은 그 차이가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난방, 화기와 조리용구 등의 안전관리(5-4항목)'은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평균 점수가 같게 나타나 이 항목에 대한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시설에 대한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차이 분석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향후 조력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에 대한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비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영역이 '보육과정, 상호작용'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교육과정, 교사와 아동간의 긍정적 상호작용, 활동의 균형적 구성이 기관 인증을 위한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Bredekamp(1986)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평가인증을 위한 강력한 요인이 보육과정과 상호작용이나 이 영역에 대한 교사의 자체 평가

와 전문가 평가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보육과정과 상호작용에 대한 조력과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이 두 영역은 교사와 원장의 마인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향상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볼 때 향후 조력은 교사 훈련을 통한 '자체 조력, 교차 조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김선주(2005)는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관이 자체적으로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노력할 때 그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체 조력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보육학계에서는 이론서위주의 교재보다는 상호 코칭을 위한 자체조력 및 교차조력 지침서, 프로그램 등을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서로간의 조력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조력 관련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사점은 교사 훈련이 보육기관의 높은 질을 위한 일차적 요인 중 하나임을 밝히고 있는 Phillips 등(2000)의 견해와 인증제도의 목적은 보육기관 스스로 서비스의 질을 고양하고자 하는 자율적 동기를 가지도록 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백혜리(2003)의 견해에 의해 지지된다.

이제 보육 시설들은 3년마다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외부 전문 조력보다는 교차 조력, 또는 자체 조력의 방향으로 나아가 각 보육 시설들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평가된 5가지 영역 중에서 '상호작용' 영역에서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선행연구(김선주,

2005; 이윤경·김여경, 2004; 안혜리, 2003)에 따르면 교사-유아간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적응 행동, 놀이수준, 영·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위의 결과는 교사-유아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전문가 조력 등을 통해 좀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유아에 대한 교사의 상호 작용 분야는 실제 영유아를 대하는 보육 상황에서의 관찰을 토대로 맞춤형 전문 조력이 이뤄질 때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방문조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동일한 보육상황이라 하더라도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는 교사의 태도와 수준은 아주 달리 표출되기 때문에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교사의 상호작용 관찰을 토대로 조력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방문조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며, 공식 조력기구인 보육정보센터의 방문 조력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서혜전(2006)은 인천시의 경우 '순회조력전문가(circuit master) 파견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악구에서는 상호작용 조력을 원하는 시설에 미리 영유아에 대한 교사의 상호작용 실체를 비디오로 촬영해서 전문가에게 보내 사전에 점검을 해보도록하여 적은 횟수로 방문조력이 시행되나 그 효과는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보육과정 영역은 '상호작용 영역'과 함께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이 많은 영역이었으며, 특히 '보육계획안의 수립(2-1)' 항목은 전체 60항목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시설 자체적으로는 '보육계획안을 구체적이고 연계성있게 수립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전문가들은

'보육계획안이 문서로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연계성도 없다'고 평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인식 차이가 분명히 있음이 드러났다. 이 결과는 연구 대상 보육시설들이 체계성, 구체성, 연계성, 연령 부합성을 갖춘 보육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21인 미만의 보육시설로 영아들이 재원을 하는 기관이었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영아 대상의 보육과정 개발이 미흡한 상태이고(이영석, 2000), 보육과정이 부재한 것이 원인의 하나로 분석될 수 있다. 또한, 보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정혜숙(2005)은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구체성, 체계성, 아동발달 적합성을 기준으로 보육계획안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성을 갖춘 보육계획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구체성, 체계성, 연계성, 발달 적합성에 갖춘 보육계획안 구성 및 수립에 대한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이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안전' 영역에서 '영유아의 안전보호' 범주는 전체 60항목의 12개 범주 중에서 세 번째로 낮은 일치도를 보임으로써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 간에 차이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시설종사자들의 안전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을 시사하는 본 연구 결과는 현직 교사의 안전지식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고 보고한 정미라 외(1999)의 연구에 의해 지지된다. 유아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을 찾아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시설, 설비를 갖추는 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일일 것이다(홍길희, 2003). 특히 영유아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육교사

는 안전지식을 갖추고 모든 영유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실내외 환경을 갖추며 수시로 영유아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영유아에 대한 성인보호,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설비와 대처방안,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에 대한 전문적인 자세와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조력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보육시설에 대한 자체 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비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영역이 '보육과정, 상호작용' 영역이었다는 점이다. 이 두 영역은 교사와 원장의 마인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향상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볼 때 향후 조력은 '자체조력, 교차 조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1인 미만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1인 이상 시설은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21인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시설종사자와 전문가의 인식 차이를 도출해내는 연구와 두 시설별 차이를 비교한 연구가 이뤄진다면 시설에 적합한 향후 조력방향을 수립하는데 보다 나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향후 조력의 방향과 초점을 제시한 것을 토대로 자체 조력, 방문 조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침서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조력 유형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성이 높은 조력 유형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수의 21인 미만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동일한 보육시설 평가에 있어 시설종사자와 전문가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봄으로써 조력의 초점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방문조력, 자체 및 교차 조력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선구(2005). 조력자의 지원이 유치원 기관 평가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선주(2005). 교사-유아의 개별상호작용을 통한 3세 유아의 사회적 적응행동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문지희(2004). 영유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실증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박복배(2005).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시설장의 인식 연구. 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박지영(2005). 가정보육시설의 시설 및 교사 특성에 따른 보육의 질적 수준.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리(2003). 보육시설 인증제도의 운영. **보육시설 인증제의 운영에 대한 토론회 자료**, 서울시 어린이집. 놀이방 연합회; 국회인권정책연구회.
- 서혜전(2006). 보육학계의 지원방향. **한국보육지원학회 2006 춘계학술대회 자료**.
- 손인숙·송진숙(2004). 부모와 교사간의 연계교육 및 유아-교사간의 상호작용 질에 따른 유아의 적응에 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39, 111-128.
- 안혜리(2003). 교사의 상호작용 유형이 3세 유아의 상징놀이 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여성가족부(2005). 2005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21인 미만 보육시설용 지침서.
- 유희정(2005).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정착을 위한 단계적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5 춘계학술대회 자료**.
- 이영석(2000). 영아보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미래 유아교육학회지**, 7(1), 277-312.
- 이 옥(200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과 보육의 질. **사회과학연구**, 8, 213-229.
- 이완정(1999). 보육시설의 질과 아동의 기질에 따른 걸음마기 영유아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한국영유아보육학**, 18, 175-195.
- 이윤경·김여경(2004). 교사-아동 상호작용 유형과 영·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4(4), 55~73.
- 정미라·배소연(1999). 유아교사의 안전지식의 정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9(1), 189-205.
- 정혜숙(2005). 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교사가 지각하는 보육과정에 관한 탐색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최연철·강병재(2005). **유아교육현장에서 관찰법을 활용한 평가 및 연구**. 서울 : 서현사.
- 태 진(1998). 보육환경의 질과 영유아의 보육시설에서의 적응.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갑순(2005). 가정보육시설의 경영 실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길희(2001). 예비 유아교사의 안전교육 경험과 지식 수준. **동남보건대학논문집**, 19(2), 365-380.
- Besky, J. (2001). Emanuel miller lecture-developmental risks(still) associated with ealy child car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2(7), 845-859.
- Bredkampe, S. (1986).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early childhood classroom observation scale for accrediting early childhood program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 103-118.
- CheryI, D. C. (2005). Perceptions of the value of national accreditation by Baptist Church weekday early education program directors.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EdD.

- Chia-Shen, S. (2005). Early childhood educators' perceptions of quality and school climate in preschool program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Kammerman, B. (2001).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International Perspectives. The Institute for Child and Family Policy at Columbia University.
- NAEYC (2004). *Accreditation*. [http : //www.naeyc.org/accreditation](http://www.naeyc.org/accreditation)
- NCAC (2004). *Recommended Changes to the QIAS*. [http : //www.ncac.gov.au](http://www.ncac.gov.au)
- OECD (2001).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America*. OECD.
- Peisner-Feinberg, E. S., Burchinal, M. R., Clifford, R. M., Culkin, M. L., Howes, C., Kagan, S. L., Yazejian, N., Byler, P., Rustici, J., & Zelazo, J. (2000). *The children of the cost, quality, and outcomes study go to school : Technical report*. Chapel Hill : Universti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Frank Porter Graham Child Development Center.
- Phillips, D., Mekos, D., Scarr, S., McCartney, K., & Abbott-Shim, M. (2000). Within and beyond the classroom door : assessing quality in child care cent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5, 475-496.
- Sylva, K., Siraj-Blatchford, I., Taggart, B., Sammons, P., Melhuish, E., Elliot, K., & Totsika, V. (2006). Captur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through environmental rating scal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 76-92.
- Tracy Lyn, G. (2005). Directors and the nonpursuit of NAEYC accreditation : Varying definitions of qual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PhD dissertation.
- Vandell, D. L., & Wolfe, B. (2000). *Child care quality : Does it matter or does it need to be improved? (special report no. 78.)*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Institute of Research on Poverty.

---

2006년 4월 30일 투고 : 2006년 7월 11일 채택